

제 1 장 醫 學 史

제1절 中國醫學史

1. 東醫學의 起源

①생활과정 중 경험의 축적에 의해 발생(인류의 도구사용, 사회생활과 관계)

②샤머니즘과 巫醫에 의해 생성 - 醫起于巫

③聖人에 의한 창제

-神農씨(炎帝) : 농업의 발명, 약물의 사용

“神農乃教民播種五穀...嘗百草之滋味... 當此之時 一日而遇七十毒”

-伏羲씨 : 牧畜의 발명

-燧人씨 : 用火法 발명

-黃帝(軒轅)와 岐伯 : 韓醫學 이론의 體系化, 鍼灸치료 創製

2. 春秋時代 以前の 醫學(~ B. C. 5C初)

1)초기 疾病에 대한 인식: 病名, 病狀등이 기재된 유물

- 殷代 [尙書.盤庚] : “心腹腎腸”등 內臟 명칭 사용

- 甲骨卜辭 : “疒”(병들어 기달 녀)에 20여종 질병의 명칭,
유행병에 대한 최초 인식 기록(疾年, 雨疾, 降疾)

2)초기 病因에 대한 인식

① 선조, 귀신의 재앙

② 음식, 기후, 환경과 질병과의 관계인식

- [秦 <呂氏春秋> 古樂編] 陰濕의 滯伏이 극심하여...

③ <山海經> 中の 질병인식 -- 38種기재 - 질병인식이 상당히 진보함

3. 戰國시대의 의학(B. C. 5C초 - B. C. 3C)

사회, 경제, 문화의 발전과 巫醫의 몰락, 專業醫의 대량출현으로 의학적 발전

1)專業醫 대량출현

2)醫學知識의 비약적 진보

①四診(望聞問切)의 기본 형성 : “切脈, 望色, 聽聲, 寫形, 言病之所在“(史記 扁鵲列傳)

②藥物療法の 이론적 飛躍 시작 : (周禮.天官) “以五味 五穀 五藥 養其病”

“凡療瘍 以五毒功之 以五氣養之 以五藥療之 以五味節之 凡藥 以酸養骨 以辛養筋
以鹹養脈 以苦養氣 以甘養肉 以滑養竅”

③鍼灸療法 : 內經에 穴位 300개 이상(穴位名稱은 160여개),

巨刺, 繆刺, 補瀉 등의 각종 手法.

3)인체구조에 대한 초보적 인식

4)한의학 기초 이론 확립 : 精氣神, 陰陽五行, 天人相應사상, 黃帝內經의 정리 등

※四大經典 : 黃帝內經, 神農本草經, 傷寒論, 金匱要略

♣ 黃帝內經

- ① 현존하는 最古의 醫書 - 素問9卷과 靈樞(鍼經)9권으로 구성됨
- ② 西漢시대 완성 : 黃帝의 이름에 依託(道家의 유행),
- ③ 漢醫學 기본이론의 총괄 : 이후 韓醫學 이론의 준칙 형성
 - 天人相應 - 治未病, 治病必求于本 사상
 - 질병발생원리 : 邪氣(일정한 致病要素)가 있어서 질병발생
 -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 -> 다만 病의 本質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때문
 - 치료는 鍼刺法을 주로 사용(藥物療法은 11곳 언급됨 - 13개 處方)
 - 미신에 반대하는 내용(拘于鬼神者 不可與言至德.....)
- ④ 歷代 內經에 대한 연구
 - 現存體系의 완성 i. 素問 : 王冰의 <黃帝內經素問注釋本>
ii. 靈樞 : 宋代 史崧이 개편
 - 歷代 內經注釋의 類型
 - i. 全面的 注釋과 校正 : 唐 王冰 <黃帝內經注釋本>, 明 吳崑 <素問吳注>
明 馬蒔 <素問註證發微> <靈樞註證發微>
清 張志聰 <素問集註><靈樞集註>, 清 高世栻 <黃帝素問直解>
 - ii. 內經을 분류하여 새로이 編纂 : 隨 楊上善 <黃帝內經太素>, 明 張介賓 <類經>
 - iii. 주요한 주제에 따라 註 : 金 劉完素 <素問玄機原病式>, 李中梓 <內經知要>
汪昂 <素問靈樞類纂約注>

4. 秦漢시대의 醫學(기원전 221년 - 기원 후 264년)

1) 의학발전의 정황

- ① 약물과 方劑의 진보 : <神農本草經>(가장 오래된 藥物學 書籍)
- ② 질병의 本質面(病機, 病變)을 탐구 : <傷寒論> 出現, 淳于意的 <診籍 - 診療簿의 일종>
- ③ 鍼灸의 진보 : <黃帝甲乙經>

2) 주요 醫書 해설

- ① <難經> : 秦越人(=扁鵲 : 전국시대) 著
 - 問答형식으로 古 醫經을 재해석한 이론서(<內經>에 제시된 문제중심)
 - 81개 문제 토론 - “81難”이라 칭
 - 脈診분야 : 『內經』의 三部九候를 氣口部位의 寸. 關. 尺 三部로 나누고
각 부위를 浮. 中. 沈 三候로 해석함
 - 經絡 : ‘奇經八脈設’ 처음 제시(‘八會穴’ 개념 처음 제시)
 - 臟腑 : ‘左腎爲腎 右腎爲命門設’ 제시, ‘腎間動氣’ 강조 (->후대 命門學說의 선단)

‘三焦有名而無形設’ 제시

- 疾病 : 傷寒을 5種으로 분류(中風, 傷寒, 濕溫, 熱病, 溫病) - 제 58 難
- 鍼灸 : ‘虛者補其母 實者寫其子’의 원칙 제시 cf)邪氣盛則實, 精氣奪則虛
- 積聚 : 五臟에서 生하면 積, 六腑에서 生하면 聚

②傷寒雜病論 : 張機(仲景 : 漢) =>“方書之祖”

- 晉시대에 이르러 王叔和가 다시 撰 - <傷寒論>과 <金匱要略>으로 나눔
- 內經, 難經의 기초 위에서 勤求古訓 博採衆方
- 傷寒論 : 辨證論治의 基礎 設定 : 한의학 辨證論治의 최초 전문 醫書,
“以六經 統百病”, 六經의 形症, 六經傳變의 機轉, 分經辨證의 치료원칙 및 방법 등.
- 金匱要略 : 臟腑經絡先後論理를 綱領삼아 40여종 질병의 辨證論治를 논술함.
“千般痰難 不越三條” -內經, 難經의 病因이론을 발전시켜 후대 三因학설형성에 큰 영향

※ 張機의 貢獻

- 診斷上 脈과 證을 함께 중시하는 원칙 확립 - 內經의 熱病學說을 충실히 발전시킴
- 많은 유효한 방제의 보존. - 소박하고 착실한 저작학풍의 수립. - 辨證論治의 기초설정

③神農本草經(神農氏著 : 東漢)

- 약물 원래 365종, 梁 陶弘景이 [名醫別錄]에 기재된 365종을 병합하여 730종이 됨.
- 藥物 毒性에 근거하여 上品(養命), 中品(養性), 下品(疾病治療)으로 구분
- 藥의 性質, 主治範圍등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 기록(“五味”이외에 “四氣”도 강조)
- 久服神仙不死的 폐단

5. 兩晉 및 隋唐시대(265 - 959년)

1)醫學發展의 概況

①주요 특징 : - 臨床醫學에서의 풍부한 경험의 축적

- 方書의 大量출현
- 基本理論과 診斷方面에는 뚜렷한 발전이 없었음
(과학기술의 未發達과 종교와 미신 풍조 유행)
- 石藥服用의 怪癖이 유행 : 새로운 질병이 출현

②진료방면

- 王叔和 - <脈經>저술 : 24종 脈象 기록, ‘寸關尺 三部脈位와 臟腑와의 관계’ 규정
獨取寸口脈診法의 臨床的 應用을 촉진함.
- <傷寒雜病論>을 정리하여 후세에 傳함.
- 대량의 방제 출현 : <千金方>, <外臺秘要>
- 鍼灸治療 : 晉 皇甫謐 <黃帝鍼灸甲乙經> - 現存하는 최초의 침구학 서적

③本草書의 대량 출현

- 陶宏景(陶弘景) : <本草經集注>

- 陳藏器 : <本草拾遺> - “十劑說” 제시 : 宣 通 補 泄 輕 重 滑 澀 燥 濕
- 蘇敬 등 : <新修本草> - 최초의 朝撰本草
- 雷斅 - <炮炙論> : 韓藥 修治 전문 서적(製藥學 專門書)
- 徐之才 - <雷公藥對>
- <劉涓子鬼遺方(遺方)>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外科 專書

2) 醫家와 醫書

- 皇甫謐(晉) : <黃帝針灸甲乙經> 現存 최초의 침구학 서적
- 王叔和(晉) : <脈經>
- 葛洪 : <肘後備急方><抱朴子><金匱藥方><玉函方> - 도교를 중심으로 한 儒道合一論者
- 魏陽伯(後漢) : <周易參同契>
- 陶弘景 : <本草經集註><名醫別錄(?)><肘後百一方><養性延命錄> - 도교 중심의 佛道合一論
- 巢元方(隋) : <諸病源候論> - 최초의 病理 전문서
- 孫思邈(晉) : <備急千金要方> - 중국 최초의 臨床百科全書 - 疾病을 五臟六腑에 歸屬시킴
- 王燾 : <外臺秘要> - 종합성 醫書임
- 內經관련 연구 - 梁 全元起의 <內經訓解>
 - 隋 楊上善<黃帝內經太素>
 - 唐 王冰(啓玄子) <黃帝內經素問>: 運氣 7편 증보
陰陽互根思想과 “益火之源以消陰翳 壯水之主以制陽光”
- 許仁則 - ‘中風’의 病因이 ‘內因’임을 강조
- 華陀 : [中臟經]
- 기타 范汪<范東陽方> 姚僧垣 <요씨집험방> 陣延之<小品方>, 謝士泰<刪繁方>

6. 宋. 金元시대의 의학 : ①傷寒論연구 및 溫病學 발전

②여러 醫學 流派 출현

1) 상한론의 발전 : 주해, 정리, 보충 방면

- ①注解 - 成無己(金)<注解傷寒論> : [傷寒論]에 전면적인 주해를 단 최초의 책
- ②整理 - 許叔微<傷寒百證歌> <傷寒發微論> <傷寒九十論>..... <普濟本事方>
- ③補充 - 朱肱<南陽活人書>: 經絡을 중시함, 龐安時(安常): 四時溫病주장<傷寒總病論>
郭雍 : 五種 斑疹 묘사<傷寒補亡論>,
董汲<小兒斑疹備急方>,
韓祇和<傷寒微旨>,
楊士瀛<傷寒類證活人總括> : “氣者血之帥 氣行則血行”

2) 古代醫書의 校釋(宋代 교정의서국)과 方書의 편저

- ①宋代 국가주도의 方書 : <太平聖惠方>, <太平惠民和劑局方>, <聖濟總錄>.
- ②개인적 방서 : 蘇軾 <蘇學士方>, 許叔微 <普濟本事方>, 嚴用和 <濟生方>.

③元代 滑壽의 <難經本義>.

- ④本草書의 수정 : - 唐 <新修本草>를 전면 수정
- [開寶本草](馬志, 劉翰 등)
 - [嘉祐補注本草](掌禹錫, 林億, 蘇頌 등)
 - [圖經本草](蘇頌)
 - [證類本草=經史證類備急本草](唐慎微)
 - [政和本草](曹孝忠)

3) 臨床醫學의 발전

①病因學 : 南宋 陳言(無擇) <三因極一病證方論> - 三因致病說

┌ 內因 - 喜怒憂思悲恐驚의 七情失調

└ 外因 - 風寒暑濕燥火 등의 六淫

└ 不內外因 - 飲食飢飽, 勞倦, 蟲獸傷, 및 각종 우연성 요인

②診斷 - 高陽生 <脈訣> : <脈經>을 歌訣로 만들, 脈象을 病變과 연결함

- 南宋 崔嘉彥 : <紫虛脈訣>에서 28종 脈象 논술

- 施發 : <察病指南>에서 33종 脈圖 : 以圖視脈의 과학적 시도

- 元 滑壽 <診家樞要>

- 杜本 : <敖氏傷寒金鏡錄>에 舌象 36종 서술 - 舌診 專門書

③鍼灸學 - 北宋 王維一 <銅人腧穴鍼灸圖經>(354穴) - 銅人 2 具 주조

cf) <鍼灸甲乙經> 349穴, 明 <鍼灸大成> 359穴, 清 <醫宗金鑑> 361穴

- 南宋의 王執中 <鍼灸資生經> - 同身寸 取穴의 표준 확립

- 宋元間에 子午流注鍼法이 출현함 - 金 河若愚 <流注指微賦>

- 金元의 竇默(初名은 傑, 字는 漢卿 後에 字는 子聲) <鍼經指南>

- 標幽賦, 通玄指要賦 등 歌賦體

- 元 滑壽(伯仁) <十四經發揮> - 奇經八脈중 任脈과 督脈은 統腹背而有專穴하여

기타 奇經과 다르기 때문에 12經과 并論하여 14正經이라 함.

④內科學 - 北宋의 董汲 <脚氣治法總要> <小兒斑疹備急方>

- 원 葛乾孫(可久) <十藥神書> : 虛勞吐血을 치료하는 經驗良方 제시

- 송 張銳 <鷄峰普濟方> : 水腫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施治

- 李杲 <脾胃論>, 張子和 <儒門事親>

⑤外科學 - <太平聖惠方>의 內消托裏의 法 : 整體觀과 辨證論治 원칙을 外科에 적용

- 南宋의 李迅 <集驗背疽方>

- 陳自明(良甫) <外科精要> : 外科의 개념을 명확히 함

- 元 齊德之 <外科精義>

- 癌에 대한 기록 : 12세기 [衛濟寶書], 13세기 楊士瀛의 [仁齋直指方]
- ⑥婦科學 - 楊康侯<十產論> - 轉胎수법은 의학사상 異常胎位전위술에 대한 최초 기재
 - 남송 朱端章<衛生家寶産科備要>
 - 陳自明(良甫) <婦人大全良方> :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전문서
- ⑦兒科學 - 北宋 錢乙<小兒藥證直訣> : 臟腑(五臟)辨證을 小兒科 임상에서 가장 먼저 사용
 - 南宋 劉昉<幼幼新書> : 虎口三關指紋檢査法
 - 元 曾世榮<活幼心書> : 審證施治에 독특한 견해
- ⑧법의학 - 有侏名<內恕錄> 宋慈<洗冤錄>, 桂萬榮<棠陰比事>, 趙逸齊<平冤錄>
 - 鄭克<折獄龜鑑>, 鄭興裔<檢驗格目>
- ⑨五官科學 - 眼科 발달
- ⑩기타 의가 - 張元素(潔古) : 易水學派, 補土派 <珍珠囊><醫學啓源><臟腑標本藥式>
 - 王好古 <湯液本草><此事難知> : 內感陰症을 연구
 - 羅天益 <衛生寶鑑> : 氣分, 血分, 三焦熱의 治療를 論
 - 危亦林 <世醫得效方> : 韓醫學 正骨방면의 基礎를 이룸
 - 滑壽 <讀素問鈔><難經本義><診家樞要><十四經發揮>
 - 王履 <醫經溯回集>, 寇宗奭<本草衍義>, 劉溫舒<素問論奧>

4) 金元四大家

	生沒	지역, 사회 환경	致病因素	치료	學派
劉完素 (守眞)	1120 -1200	북방, 戰亂빈번 急性熱病유행	六氣致病-->火熱 病機19條 중시	主火派 寒凉派	穆子素, 馬宗素, 羅知悌, 葛雍, 羅洪
張從正 (子和)	1151 -1234	”	外感邪氣	邪氣가 인체 공격 -攻下派(汗吐下)	劉完素의 一派
李杲 (東垣老 人)	1180 -1251	장기간 戰亂, 食生活 不實, 勞役過度	胃氣虧乏-內傷 (體內正氣 손상)	脾胃중시-補土派 主氣學派 脾胃學派	그의 스승 : 張元素, 제자 : 王好古, 羅天益
朱震亨 (丹溪)	1281 -1358	남방, 物産豊富 生活安定	‘陽有餘陰不足’ 相火妄動	滋陰派, 養陰學派	王履, 戴思恭

- 劉完素 : 運氣學說의 영향, 內經 至眞要大論의 病機十九條의 이론에 근거
 - <宣明論方><素問玄機原病式><傷寒直格><素問要旨>
- 張從正 : 六氣가 邪氣로 변화되어 인체에 侵犯 - 邪氣를 인체에서 驅逐 - 汗吐下 多用
 - <儒門事親>
- 李杲 : “百病皆由脾胃衰而生也” “人以胃土爲本”, “人以元氣爲本” ->溫補脾胃하여 抑火
 - <脾胃論> <內外傷辨惑論> <蘭室秘臧>
- 朱震亨 : 劉完素의 主火論에 영향을 받음. 陰常不足而陽常有餘論- 치료는 補陰精而抑相火
 - <格致餘論> <局方發揮>

7. 明清시대 : 서양의학의 유입

1)本草學의 발전 및 醫方의 편집 - 李時珍의 <本草綱目> 趙學敏의 <本草綱目拾遺>
吳其濬의 <植物名實圖考>

① <本草綱目>

- 明 李時珍이 16세기 이전의 藥物學 업적을 총괄
- 선진적인 약물 분류법을 제시 - '綱目체계'를 창안

②醫方의 편집 : 朱橚 <普濟方>, 吳崑 <醫方考>, 汪昂 <醫方集解>, 吳儀洛 <成方切用>.

2)溫病學說의 형성

- 溫病 : 熱性病의 총칭으로 주로 外感急性傳染性熱病을 칭함

(1)戾氣致病說

吳有性(又可) : <溫疫論><補遺> - “一病一氣說”을 주장

- 溫疫의 病原은 “非風非寒非暑非濕乃天地間別有一種異氣所成”

(溫疫은 口鼻로 감염된 후 傳染됨) cf. 傷寒은 毛孔으로 침입. 傳染性은 약함.

(2)溫病學說

- 葉桂(天士, 溫熱大師) <溫熱論> <臨證指南醫案> :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
溫病學派의 創始者 - '衛氣營血' 辨證 創始
- 薛雪(生白) <溫熱病篇>
- 吳瑭(鞠通) <溫病條辨> : 溫熱病의 三焦辨證論治理論을 발전시킴
- 王士雄(孟英) <溫熱經緯> : 콜레라, 페스트, 말라리아 등 전염병 病例를 서술

3) 古代 醫書의 연구 校釋

① 黃帝內經 연구

- 馬蒔 <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><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> :

內經 전체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

- 張志聰 <黃帝內經素問集註><黃帝內經靈樞集註> : 전체적인 주석

- 張介賓(景岳) <類經> : 내용별로 12가지로 분류하여 주석(...類經圖翼, 景岳全書)

- 李中梓 <內經知要>(醫宗必讀), 汪昂 <素問靈樞類纂約注> : 중요 내용만 뽑아서 주석

② a. 傷寒論 연구

- 方有執<傷寒論條辨>

- 王履 <醫經溯回集> 中の [張仲景傷寒方法考]

- 喻昌(嘉言) <尚論篇>(醫門法律),

張遂辰 <張卿子傷寒論>,

張志聰 <傷寒論集註>,

柯琴 <傷寒論翼><傷寒來蘇集>

尤怡(우이) <傷寒貫珠集>

b. 金匱要略 연구

- 徐彬 <金匱要略論注>, 尤怡<金匱要略心典>,

吳謙 <醫宗金鑒> 中の [訂正金匱要略注]

4)임상의학의 발전

①內科學：溫補派와 補陰派 사이의 논쟁이 심했음

-溫補派：薛己<內科摘要>, 張介賓<景岳全書>, 趙獻可<醫貫> - 腎陽을 補益

-補陰派：徐大椿(靈胎) <醫貫貶>, 陳念祖(修園)<景岳新方貶>

-內科學 종합적 저술：王綸<明醫雜著>, 龔廷賢<萬病回春>, 王肯堂<證治準繩>

②外傷科學

- 薛己<外科發揮><外科心法><正體類要><外科經驗方>, <內科摘要>

->이 시기의 가장 유명한 外科醫

- 汪機<外科理例>

- 王肯堂<瘍醫證治準繩><外科啓玄>

③婦人科：王肯堂<女科證治準繩>, 武之望<濟陰綱目>, 傅山<傅青主女科>

④小兒科：萬全(密齋) <萬密齋醫書十種> <幼科發揮> <痘疹心法> <片玉痘疹>

薛鏗<保嬰撮要>, 陳復正<幼幼集成>

⑤鍼灸科：高武<鍼灸節要><針灸聚英>. 楊繼洲(濟時)<鍼灸大成>, 徐鳳<鍼灸大全>,

汪機<鍼灸問對>, 雷豐<灸法秘傳>, 廖潤鴻<勉學堂鍼灸集成>

⑥五官科學：王肯堂<證治準繩>, 王維德<原機啓微>, 傅仁宇<審視瑤函>,

薛己<口齒類要>, 李紀方[白喉全生集]

⑦診斷學：李時珍<瀕湖脈學>, 李中梓<診家正眼>, 張介賓-<景岳全書>中에 ‘十問篇’

林之翰<四診抉微>, 張登<傷寒舌鑿>

*기타: 明 李梴<醫學入門>, 孫一奎<赤水玄珠><醫旨緒餘>, 明 陳實功 <外科正宗>

明 王綸 <本草集要><醫論問答> 明 樓英 <醫學綱目>, 明 虞搏 <醫學正傳>

清 沈金鰲<雜病源流犀燭>, 喻昌<醫門法律>, 程國彭 <醫學心悟>, 章楠 <醫門棒喝>

清 唐宗海(容川)<本草問答><血證論>

清 王清任<醫林改錯>：解剖學에 공헌, “瘀血”을 치료하는 活血祛瘀의 치료법 제창